



#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보험산업에 대한 전망

김진억 수석담당역

## 요약

■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결정이 난 직후부터 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고 있지만, 영국 보험산업은 그동안 위기상황 대응능력 제고, 재무건전성 강화, 지속적 자산·부채 리스크관리로 시장충격에 대한 회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■ 지난 6월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가 가결됨에 따라,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.

● 실질적인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향후 단일 금융 여권(Passport)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보고 일부 영국주재 은행 등은 EU 회원국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함.  
- 단일 금융 여권이 사라질 경우 보험규제 수준이 높아지고 EU 사업을 위한 행정비용과 인건비 상승이 우려됨.

■ 영국 보험산업 관계자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보험산업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<sup>1)</sup>를 내놓고 있음.

● 런던 보험시장인 로이즈(Lloyd's of London)는 브렉시트 결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특수보험과 재보험 분야의 중심지로 계속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.  
- 그동안 응급상황에 대비를 해왔고 런던 외에도 꾸준히 보험허브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.

● 국제 언더라이팅 협회(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)는 영국 보험산업이 브렉시트에 대한 충격에 대해 충분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.  
- 런던 보험시장은 브렉시트 투표가 가결될 것을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해왔음.

1) Insurance Journal(2016. 6. 24), "Re/Insurance Business Leaders Begin to Comment on Post-Brexit World".

-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&P는 EU 탈퇴 결정으로 영국 보험회사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재평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음.
    - 이는 영국 보험산업이 타 금융산업에 비해 리스크 노출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함.
  - 영국 보험자협회(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)는 영국 보험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하며, 시장 충격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조치를 구축해 왔다고 발표하였음.
    - 소비자들에게 영국의 EU 탈퇴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성급하게 금융 관련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주문함.
- 이와 더불어 Aviva보험회사와 리스크컨설팅 기업은 영국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낙관하고 있음.
- Aviva보험회사는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, 충분한 자산부채 매칭을 통한 회복력이 강해 시장 스트레스가 낮다고 발표함.
    - 지난 4년 동안 경제적 자본 초과금을 3배로 늘려왔으며, 2016년부터 적용된 솔벤시 II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부자본모형을 채택하고 자본비율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.
  - 보험회사의 리스크컨설팅 기업인 BaxterBruce 또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건전성감독기관(PRA)은 솔벤시 II 자본규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<sup>2)</sup>
- 다만, 리스크관리자협회 및 보험전문 로펌은 영국 보험회사들에 대해 브렉시트에 대비한 안전 및 위험 관리를 주문하고 있음.
- 기업보험·리스크관리자협회<sup>3)</sup>는 리스크관리자들에게 브렉시트를 전사적 리스크로 보고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를 것을 주문함.
  - 보험전문 로펌인 클라이드앤코(Clyde & Co.)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보험회사들에게 유럽과의 거래규모를 파악하고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.
    - 만약,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사업을 인수하거나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고, 낮은 수익성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 갱신권의 매각 또는 포트폴리오 이전을 고려할 것을 권유함.
-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도 영국 보험산업은 위기상황 대응능력 제고, 재무건전성 강화, 지속적 자산부채 리스크관리로 시장 충격에 대해 회복력이 강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음. [kiri](#)

2) PropertyCasualty360(2016. 6. 24), "Brexite and the P&C insurance industry: What's next?".

3) Association of Insurance and Risk Managers in Industry and Commerce.